

장병완 “‘임 행진곡’ 결국 청와대가 문제”

국민의당-광주교육청 정책간담회

기념곡 지정해야 국회 협조

누리예산 국가 책임 공감

국정 교과서, 5·18 왜곡 해결

20대 총선에서 광주지역 8개 의석을 휩쓴 국민의당 당선인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3일 다짐했다.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광주 홀리데이인 광주 컨벤션홀에서 광주시 교육청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당선인 8명 가운데 전정배 공동대표와 박주선·김동철·장병완·김경진 당선인 등 5명이 참석했다.

장병완 광주시교육감은 “20대 국회에서 누리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예산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법률적 뒷받침이 돼야 하고 사회적 논의가 구상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동철 당선인은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4조 원이 넘고 교수 학습비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누가 봐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정이 이 문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



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광주교육청 주최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위장자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교육청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기대감이 난망하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편향에 대해서도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목

소리로 약속했다.

장병완 의원은 5·18 기념행사위원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 “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물론 지난해 국무총리도 ‘자기 선을 넘어서 문제’

라고 언급했다”고 밝힌 뒤 “결국은 청와대 문제인데, 재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현재로서는 정부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 해결 없이 20대) 국회의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는 강한 어조로 뜻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민의당 내주초 대규모 당직개편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사의...박선숙 사무총장 유임 관심

국민의당이 조만간 대규모 당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복심(腹心)’으로 평가받는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3일 사의를 표명, 당직 개편의 물꼬를 텄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진입한 이 본부장은 창당 과정에서 안 대표를 최측근에서 보좌해왔으며 당 전략홍보본부장으로서 4·13 총선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이 본부장은 사의 표명과 함께 안 대표에게 “당직개편이 필요하다. 조속히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6명의 대변인단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원내 및 원내외 대변인 등 2~3명으로 대폭 개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직 개편을 놓고 당내 계파 간의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당장,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의 지지를 상승세 국면에서 감동보다는 결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다는 점에서 원만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의 친안(친안철수) 그룹도 당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호남 의원들도 당내 현안에 협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대규모 당직 개편으로 수권 정당의 기틀을 다질 예정”이라며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종인 “원구성 마치고 전당대회 준비하자”

더민주 만장일치 전대 연기

오늘 원내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둘러싼 논란을 별다른 잡음 없이 종식시켰다.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오는 8월말~9월초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다.

애초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놓고 당내 범주류와 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연석회의에선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었다. 대체로 범주류 측은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비주류 측은 김종인 대표 체제를 정국회 이후까지 끌고 가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날 회의에 앞서 “오늘 여기서 전당대회를 빨리 하느니 혹은 연기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솔직히 연기를 바라지도 않는다”며 “원 구성을 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당대회를 하도록 준비를 해드렸다. 나로 인해 더 이상 이 문제를 열거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해졌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분위기는 8월말~9월초 개최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대부분의 발언자는 범주류 의원들이었고 이들은 전당대회 연기에 반대한다며 8월말~9월초 개최에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8월말~9월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4·13 총선을 불과 90일 앞둔 지난 1월15일 문재인 전 대표의 삼고초려에 따라 더민주에 합류한 김 대표는 같은 달 27일 당 대표직을 맡은 이래 7개월 여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김 대표는 러시아 전제 군주인 ‘차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탈당과 분당 사태로 어수선한 당을 빠른 속도로 안정화시켰다. 이 결과로 야권 분열 속에서도 총선에서 123석의 원내 제 1당이라는 예상 외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더민주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이날 막판 표심 잡기에 전념했다. 특히 조선이 많은 개원국회 특성상 기존의 친분관계보다는 선거 당일 분위기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후보들은 과거 선거 때보다 현장 연설·토론 준비에 매진하는 상황이다.

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당의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데다 후보들을 잘 모르는 조선 당선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 선거 당일인 4일 오전 이례적으로 후보자 토론회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어버이연합 게이트’ 공동대응 더민주-국민의당 첫 공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 공조가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의혹 규명을 놓고 첫 시험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제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양당은 공식적으로 연합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더민주 박병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2차회의에서 “국민의당 역시 어버이연합에 대한선 진실을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날이라도 (국민의당이) TF를 공식 구성하거나, 관련된 담당자와의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제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 내정자는 이날 “당내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이런 문제는 철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자리 지켜라... 공부해라”

국민의당 워크숍...박지원, 조선에 ‘정치 비법’ 전수

국민의당 차기 원내대표로 내정된 박지원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조선 당선인들에게 ‘정치 비법’을 전수했다.

박 의원은 여당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4선의 중진을 거치며 터득한 다양한 실천 경험을 토대로 의정 생활의 포인트를 깨알같이 제시했다.

박 의원은 조선 당선자들에게 ‘금귀월래(金歸月來)’를 주문했다. 지역구의 월들은 금요일에 귀향해 지역 주민들을 만난 뒤 월요일에 서울로 돌아와 의정 활동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귀월래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기도 했다.

성실한 의정생활도 강조했다. 상임위 등에서 질문만하고 자리를 뜨기보다 타

의원들의 질의 등을 지켜보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국정감사 우수의원인 박지원은 자리를 계속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기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자를 정치적 동반자로 생각하며 대화를 잘 받고 현안에 대해 솔직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말조심’도 해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해줘야 변명을 하게 되면 일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짧은 문장과 심플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기에 ‘야당은 야당 다뤄야 한다’며 조선들에게 야당 의원으로서의 투쟁력을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특구내 빌딩 매매

지하 1층 ~ 지상 7층 (중심 상업지역)

대지: 661㎡ (200평) 건축: 495㎡ (150평)
연면적: 3,446㎡ (1042평)

최상의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시 최적
-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내 감면
- 다양한 보조금 지원 및 대폭적임 세제감면 금융지원

010-8696-8949
미래나눔공인중개사

(주)다산부동산중개법인

부동산투자 컨설팅, 관리 상담, 상가 토지전문

아파트매도 - 북구 양산동 새한아파트

- 79㎡ 2층 남향 급매 8,950만원
- 세차장 매수 70~80평 광주권 5억원대 매수
- 폐차장 : 1,000평 이상 매수

- 토지매도: 광산구 선운지구 5,400㎡ 매매가: 54억원, 자연녹지지역, 8차선도로접, 미관지구

- 광주시내지역 6억, 10억대 : 수익률 좋은 상가건물 매수

- 정음 소성면 요양시설 매매 : 4.6억 대지 800평, 건평 114평 시비권없음, 주변저수지 조망권 양호

채용공고

부동산경매 배우면서 일할실분
NPL배우면서 일할실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주)다산부동산 Tel. 062)682-2288
365shops@naver.com H.P 010-5180-1945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호로 50번길 55번지 KT 풍암빌딩 1층(풍암저수지맛있어)

투데이 경매

부동산 경공매 추천물건

- 광주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
광천터미널 뒤편 위치
현 나이프를림으로 사용중
대지 2,644㎡ 건물 8,487㎡
감정가 138억 8천
최저가 62억 2천
-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나대지**
남평읍 광남 고등학교 인근
도로접 나대지
전원주택부지 및 청고적합
대지 2608㎡
감정가 4억 3천 최저가 4억 3천
- 광주 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운암동 공구거리 대로변위치
사옥 전시장 침포 적합
지하 1층 ~ 지상 5층
대지 220㎡ 건물 641㎡
감정가 7억 4천 최저가 5억 9천
- 광주 북구 신안동 모텔**
신안동 임동사거리 인근 모텔
지상 1층 ~ 지상 5층(객실28개)
대지 363㎡ 건물 1024㎡
감정가 9억 9천
최저가 6억 9천
- 광주 남구 주월동 근린건물**
남구청에서 미래아동병원방향
대로변 접, 사옥 병원 등 추천
지하 1층 ~ 지상 8층
대지 698㎡ 건물 3,752㎡
감정가 138억 8천 최저가 62억 2천

투데이옥션 이현석
010-9963-6345